

강기정 시장 “금타 새 공장,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고용보장 등 건립 적극 협력 함평 이천시 용도변경 지원 민관합동특별팀 본격 가동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TF)’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민관합동특별팀 회의를 열고 참여 기관·단체와 함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금호타이어,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경위 보고 △금호타이어 측의 조치사항과 향후계획 △광주연구원 화재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대기·수질·악취·폐기물 등 환경분야 추진사항과 대응계획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생계·심리 지원 방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상황지원단 운영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을 기관별로 보고·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금호타이어 노조·협력업체, 피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고용 위기지역 지정 위한 협력 강화 △공공장철거 시 오염물질 비산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등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환경, 경제, 고용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별팀 정례회의(월 2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장 복구 작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 공장 건립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화재는 시민 피해 등 지역의 경제·사회·생태환경 등 여러 분야에 복합위험을 남겼고, 민관합동TF는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노동자 고용보장, 생태환경 점검, 주민 피해 보상·지원, 새 공장을 짓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TF의 노력이 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고용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금호타이어 새 공장을 짓는 일이고 광주시는 새 공장을 짓는 일에 적극 협력·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새 공장 건립 지원은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까지 포함하고 있어 금호타이어에 공장 재가동의 선택지를 넓혀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평 빛그린산단 내 부지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했다.

공장을 함평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광주공장 부지를 담보로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공장 용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광주시는 현행법상 공장이 가동을 멈춘 뒤 토지 활용 계획을 심사 받아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화재로 이미 공장이 멈춘 선 데다 강 시장도 새 공장 건립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금호타이어가 함평 이전을 결정하면 광주공장 부지 용도 변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산구, 오늘 노사민정 참여 금호타이어 대책회의

광주 광산구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안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범대책기구를 운영한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구청 2층 상회의실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대책회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에 따른 경영 위기, 고용 불안, 주민 피해 등 문제를 지역 연대로 풀어나가기 위한 비상 대응 기

구다. 노동계, 기업·경제, 시민사회,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등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23명이 참여한다.

대책회의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 △주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지역경제 상생 발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비롯한 범정부 지원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공장 이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발생한 불은 꺼졌지만, 화재 피해 대응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주민 피해와 일상 회복, 고용 불안 해소와 공장 종사자 생계 안정, 지역경제 침체극복 등 산적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지역 노사민정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전남 밤바다 누빈 크루즈,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

전남도 4차례 시범운항 호응 김영록 지사 “해양관광 모델”

전남도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을 위해 금오도, 나로도, 거문도, 백도 등 아름다운 전남의 섬 경관을 즐기는 ‘섬 밤바다 크루즈’를 시범운항, 호응을 얻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진행된 섬 밤바다 크루즈 시범운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1박2일 코스로 총 4차례 진행됐다.

섬 크루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탑승권이 조기 매진되고 1,100여명의 이용객이 금·토요일 오후 3시 여수에서 출발해 다음 날 11시까지 금오도와 나로도, 거문도, 백도 등 전남의 섬을 항해했다.

첫째날에는 금오도, 안도, 연도, 나로도, 손죽도, 거문도 등 다도해 섬 경관과 함께 바다 한 가운데서 맞는 노을,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과 별밤 감상, 불꽃놀이, 선상공연, 디너뷔

페, 오션뷰 객실 등 각종 크루즈 서비스가 만족도를 높였다.

둘째날에는 거문도를 출발해 해돋이 포인트로 이동, 다도해 일출을 감상한 뒤 여수항으로 귀항했다.

크루즈선은 2만2,000t급 ‘팬스타리프호’다. 총 115개 객실을 비롯해 편의점, 사우나, 마사지룸, 노래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번 섬 밤바다 크루즈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를 포함한 도민에게 20% 할인, 가정의달을 맞아 아동보육시설, 한부모가족 등 도내 취약계층 100여명에게 무료 승선 체험으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크루즈 투어를 통해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다도의 아름다운 섬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 여행은 전남 해양관광 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전국 첫 친환경농산물 알선센터 운영

9월 말까지...판로 미확보 농가 대상

전남도는 1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와 함께 9월30일까지 6달간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는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 정보 부족에 따른 시기별 물량 확보 어려움

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 입주했고, 벼와 보리 등을 제외한 과수·채소류 3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중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농가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계약재배를 했으나 공급저항 상황 변화로 납품이 어렵게 됐을 때도 긴급 구매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과수는 9월 이후 수확하는 작물을, 채소류는 6월 이후 파종이나 정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신청해야 한다.

품목별로 물류센터에서 구매가 결정되면 센터에서 매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알선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도,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서 152만 달러 계약

12개국 900만 달러 MOU도

전남도는 1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7개 기관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900만 달러 어치의 수출 양해각서(MOU)와 152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상담회에선 전남 농수산식품의 판로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등 신규 시장을 포함한 12개국 바이어 30명이 참여했다. 또 GS홈쇼핑, NS홈쇼핑 등 국내 유통기업 MD 38명, 수출기업 100개사가 대거 참여해 활발한

상담과 교류가 이뤄졌다.

특히 K-푸드 열풍을 이끈 김을 비롯해 쌀·국류 가공품, 떡류, 건나물, 해조류 가공식품 등 다양한 농수산 가공식품이 선보였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 품평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현장서 900만 달러 규모 수출 MOU를 맺었다. 해외 바이어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직접 확인하고 버섯, 김, 전복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152만 달러의 현장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정근산 기자

해남군 공고 제2025-1584호

분묘개장공고(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한다.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한다. 또한 동일 지번내에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한다.

2025년 6월 2일

해 남 군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73기

소재지	지번	지목	기수	비고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항리	337-22	임	1	농업연구단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삼기리	산136-1	임	2	농업연구단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삼기리	426-3	전	2	농업연구단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삼기리	435-2	전	1	농업연구단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삼기리	305	전	1	농업연구단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삼기리	산134-1	임	1	농업연구단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삼기리	산112	묘	44	농업연구단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삼기리	산140-1	임	2	농업연구단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항리	산23-3	임	4	농업발전부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항리	산24-2	묘	15	농업발전부지
합 계			73	

2. 개장사유 :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 내 변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의 개장
- 기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4. 개장 후 안치장소 : 남도농업진흥단지공영묘원(해남군)

5.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간

6. 공고기간 : 2025. 6. 2. ~ 2025. 7. 21. (50일)

7. 신고 처 : 해남군청 기후변화대응지원단 ☎061-530-5085

그린공 알로에

그린공 홈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공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아 실현 면역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빠른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함께 육아’ 캠페인

육아는 한 마음 아이는 큰 희망

보건복지부 | 전라남도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추화환 3단 |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233-9961 Fax. 672-9961 | 농림 빅백성 302-0316-649511